

미시마에키 (역) 남구를 나가서 약 5분 걸어가면 시가지에서 샘물과 개똥벌레를 볼 수 있는 거리 미시마. 이같은 거리가 어디에 있을까 많은 문인들이 좋아하며 작품의 소재가 된 미시마 살고 있는 주민과 관광객에게 『마음 편한 거리』가 되도록 시민·기업·행정이 협동으로 환경정비를 했습니다. 웬지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쉬는 거리「미시마」를 즐기십시오.

산책소용시간 5km 약 2 시간

뒷면 = 해설을 보십시오

▲ = 후지산을 잘 볼 수 있는 곳

2007.11.12 発行



라쿠주엔 고하마이케 물이 많은 때 10분



겐베이강 강안을 걸을 수 있음 7분



하수누마강 (미야의 가와) 큰 잉어에 깜짝 놀람 9분



에도시대 미시마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유물 3분



가와세미 (물충새) 미시마시의 새 11분



가미나라 우물 6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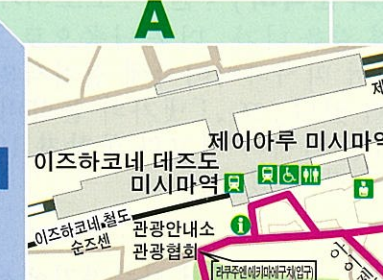
미즈노소노목지 6분



미시마바이카모노사토 대하마를 군락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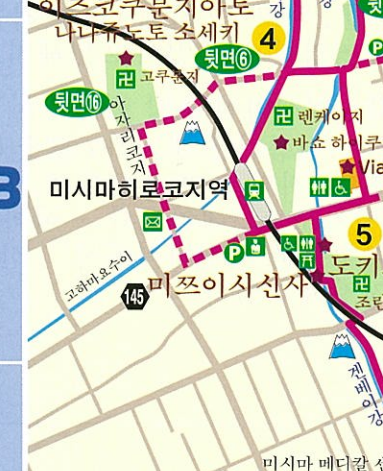
라쿠주칸 2분



호화로운 높은 마루식 다실만들기. 천정과 두꺼운 방장지에는 210에 이르는 장식회화가 그리고 있다. 한때 영친왕 이은전하의 별장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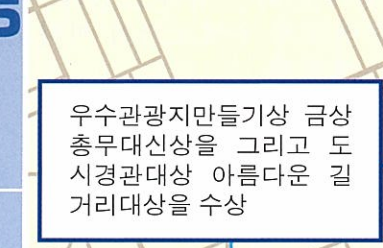
미시마시 문화회관 8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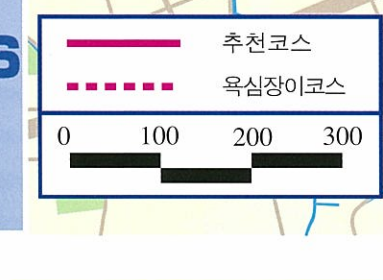
미시마시 문화회관 8분



미시마시 문화회관 8분



미시마시 문화회관 8분



미시마시 문화회관 8분



미시마시 문화회관 8분



고모이케 고엔 고모이케공원 10분



갈수기에는 펌프로 물을 길어올리고 수위를 유지되어 있음



갈수기에는 펌프로 물을 길어올리고 수위를 유지되어 있음



갈수기에는 펌프로 물을 길어올리고 수위를 유지되어 있음



갈수기에는 펌프로 물을 길어올리고 수위를 유지되어 있음



갈수기에는 펌프로 물을 길어올리고 수위를 유지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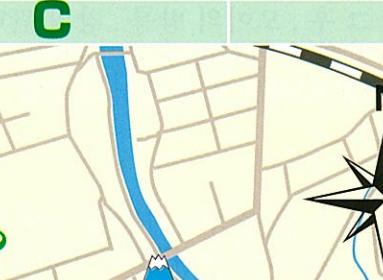
갈수기에는 펌프로 물을 길어올리고 수위를 유지되어 있음



갈수기에는 펌프로 물을 길어올리고 수위를 유지되어 있음



시라타키 고엔 시라타키공원 7분



여름철에는 솟아나는 물이 소리를 내며 흘러요



여름철에는 솟아나는 물이 소리를 내며 흘러요



여름철에는 솟아나는 물이 소리를 내며 흘러요



여름철에는 솟아나는 물이 소리를 내며 흘러요



여름철에는 솟아나는 물이 소리를 내며 흘러요



여름철에는 솟아나는 물이 소리를 내며 흘러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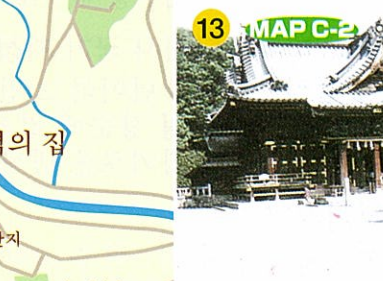
여름철에는 솟아나는 물이 소리를 내며 흘러요



메구미노코 1분



「영차」소리와 함께 우물물을 길어올리는 인형 은혜의 아이 5분



「영차」소리와 함께 우물물을 길어올리는 인형 은혜의 아이 5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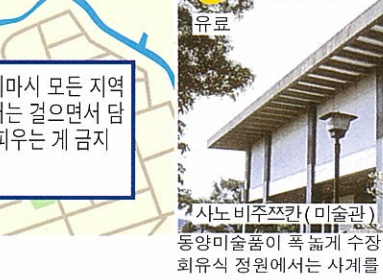
「영차」소리와 함께 우물물을 길어올리는 인형 은혜의 아이 5분



「영차」소리와 함께 우물물을 길어올리는 인형 은혜의 아이 5분



「영차」소리와 함께 우물물을 길어올리는 인형 은혜의 아이 5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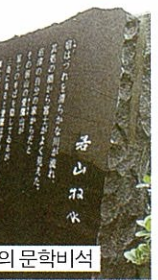
「영차」소리와 함께 우물물을 길어올리는 인형 은혜의 아이 5분



「영차」소리와 함께 우물물을 길어올리는 인형 은혜의 아이 5분



메구미노코 1분



「영차」소리와 함께 우물물을 길어올리는 인형 은혜의 아이 5분



「영차」소리와 함께 우물물을 길어올리는 인형 은혜의 아이 5분



「영차」소리와 함께 우물물을 길어올리는 인형 은혜의 아이 5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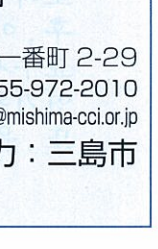
「영차」소리와 함께 우물물을 길어올리는 인형 은혜의 아이 5분



「영차」소리와 함께 우물물을 길어올리는 인형 은혜의 아이 5분



「영차」소리와 함께 우물물을 길어올리는 인형 은혜의 아이 5분



「영차」소리와 함께 우물물을 길어올리는 인형 은혜의 아이 5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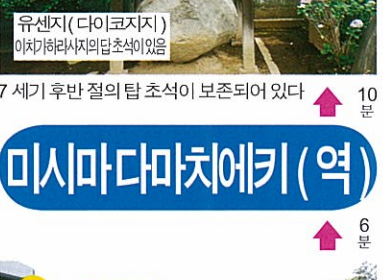
미즈베노 분가쿠히 강가의 문학비석 9분



미시마진자 혼덴 미시마신사 본전 3분



미시마 다이샤 신지와 사쿠라 미시마신 사성스러운 연못과 벚꽃 8분



유센지 (다이코지) 이치가하라하치담초석이 있음 10분



본격적인 일본식 정원 2분



유료 2분



유료 2분

三島商工会議所編
静岡県三島市一番町 2-29
TEL055-975-4441 FAX055-972-2010
http://www.mishima-cci.or.jp info@mishima-cci.or.jp
協力：三島市

산책 포인트 해설

자연 환경 포인트

①물총새

부리가 길며, 등의 파란색과 가슴과 배의 주황색의 대비가 아름답다. 이른 봄 쫓, 수컷이 암컷에 물고기를 건네며 구애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현재, 도시화와 함께 먹이터를 잃으며 강으로부터 모습을 감추고 있다.

②개똥벌레

옛날, 겐베에강의 유역에는 많은 원시개똥벌레를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샘물의 감소로 인해 수량이 줄어든 겐베에강에서 모습을 감춰버렸다.

1992년, 현지 기업에 의한 냉각 물의 공급으로 다음해에는 방류한 유충이 우화해, 개똥벌레가 부활했다. 그 후, 모이의 방류, 강의 관리·청소에 의해, 5월 초순에는 원시 개똥벌레의 반딧불을 볼 수 있는 드문 강이 되었다. 현재, 겐베에강의 원시개똥벌레는 일본에서 1, 2를 다투며 발생 시기가 빠른 것이 특징이다.

③미시마바이카모

물의 오염에 대단히 민감하며, 깨끗하고 찬 물속에서밖에 자라지 않는다. 꽃이 피는 시기는 5-9월 경이지만, 장소에 따라서는 사시절에 피어 있다. 미시마(三島) 자생의 것은 이미 멸종했으며 현재 있는 미시마바이카모는 가키타(柿田) 강에서 보호 육성된 것을 이식한 것이다.

④금목서 <미시마타이샤 국가 지정 천연 기념물>

나무의 연령은 1,200년이라고 전해지는 일본 제일 큰 나무다. 9월 상순과 9월 하순-10월 상순에 걸쳐서 2회 열은 황색의 작은 꽃을 가지 전체에 피우며, 그 향기로운 냄새는 2리에 달한다고 전해지고 있다.

⑤시라타키공원

큰 느티나무들이 있어, 마음 편한 나무 그늘을 만들고 있다. 발 밑에는 용암이 노출해서 여기저기에서 후지산(富士山)의 봄물이 솟아 나오며, 조금 떨어진 고모이케(菰池)에서의 샘물과 합류해, 사쿠라가와(櫻川)가 되었다. 일찌기 여기는 미시마(三島)의 일대의 샘물 땅으로 끌어 오르는 수량이 많이 폭포처럼 흘러 내려서「시라타키」라고 불린 것이 이름의 유래다.

⑥하스누마강(미야(宮)씨의 강) <원류:라쿠쥬엔의 고하마이케 전장 1Km>

라쿠쥬엔에 고마쓰 미야의 별장이 있었던 것부터「미야(宮)씨의 강」이라고 부르고 있다. 한때 샘물의 고갈로 강이 더럽혀져버렸지만, 지역의 유지가 미시마시와 교섭하며, 토레 미시마공장에서 냉각수를 흘러 보내게 되어, 현재와 같은 깨끗한 강이 되었다. 이 지역의 사람들의 활동은「미야(宮)씨의 강을 지키는 모임」으로 정착해, 봉사 활동으로

강을 청소하고, 화단을 설치하는 등 사계절마다 꽃을 피우고 있다.

⑦겐베에강 <원류:라쿠쥬엔의 고하마이케 전장 1.5Km>

강의 명칭은 공사에 깊게 영향을 미친 데라오켄베에로부터 유래한다. 풍부했던 수량은 도시화와 함께 격감해 강의 오염도 심해졌다. 1990년,「겐베에강 친수공원사업」의 지정을 받아 강 유역이 정비되었다. 물도 냉각수를 흘려서, 현재는 강의 주변 환경의 아름다움을 되찾게 되었다.

또, 시민에 의해「겐베에강을 사랑하는 모임」이 결성돼 하천청소나 반딧불의 유충의 방류등의 활동을 통해서 친수공원은 유지되고 있다.

⑧사쿠라강(넛가의 문학비) <원류:고모이케공원·시라타키공원>

미시마타이샤 옆 길을 나가, 더욱 남쪽으로 흐르고 있다. 시라타키공원에서 미시마타이샤에 걸쳐서의「수상대로」는 보도도 아름답게 정비되어 있다. 또,「넛가의 문학비」라고 다자이오사무와 와카야마보쿠스이등 미시마 연고의 문학자 10명의 시비도 나란히 세워 문학 산보도 즐길 수 있다.

⑨고텐강

시라타키공원 부근의 수문에서 사쿠라강에서 갈라지지만, 이 수문은 수량이 많으며 격렬하게「활활(돈돈)」하며 흘러내리는 것부터「돈돈후치」라고 부르고 있다.

⑩시노미야강

이름의 유래는 이즈(伊豆) 시노미야히로세 신사(神社)로부터 전해받아, 라쿠쥬엔 고하마이케 밑을 흐르는 자연하천이다. 지하 배수로가 되어 있었던 강을 2004년에 정비해, 자연스레 분출하고 있는 샘물을 시노미야카와로 흘러, 휴식의 장소에 변화시켰다.

⑪고모이케공원

공원 내의 고모이케의 샘물은 사쿠라강(櫻川)의 수원이 되고 있다. 이름의 유래는, 옛날, 마코모(眞菰)라고 하는 식물이 무리지어 살고 있었던 것으로부터 명명할 수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⑫나가자토 온수지 <미시마시 조망 포인트>

나가자토 온수지는 아름다운 후지산(富士山)을 바라볼 수 있는 것부터 2002년에 미시마시의 조망 포인트로 지정했다. 미시마시에서는 이 밖에 7개의 포인트로(쓰에히로산·야마나카시로아토·세교다이라·무카이야마고분군·신마치바시·신조하시 이외)을 같이 조망 포인트로서 지정하고 있다.

역사 포인트

⑬미시마고요미(음력달력)·미시마차완(미시마 고요미시의 집)

간토방면의 지방 달력 중에서 가장 오래되었으며, 국내에서도 가장 이른 목판 인쇄 달력으로서 출판되었으며 기술도 우수했다. 가와이(河合)가의 전승에서는 보물거북 년간(770-780년)에 선조가 야마시로쿠니의 가모(賀茂)보다 미시마묘진을 관청해서 이즈미시마(三島)에 항복하고, 그 자손의 가와이(河合)씨가 대대로 달력을 판행해 왔다고 한다.

미시마차완의 호칭의 유래의 하나는 미시마고요미에 있다. 무로마치(室町) 시대 말기부터 모모야마(桃山) 시대의『다회기』에는「미시마(三島)」,「고요미(달력)」라고

적혀 있다. 그 당시에는 음력을 썼다.

이것은 와비차를 창조하려고 하는 다도가들이 한반도(朝鮮半島)에서 가져온 도자기를 애용하며, 그 조우간 문양이 미시마고요미의 가나 문자를 닮은 것부터「미시마테」,「고요미테」라고 명명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⑭효행 개의 무덤(엔모우지)

에도 시대 말기의 때, 번견으로서 모자 6마리의 개가 절을 지키고 있었다. 한마리의 강아지가 병으로 죽은 후, 어머니 개도 병이 나버렸지만, 강아지들은 옆을 떠나지 않았다. 마을 사람으로부터 음식물을 받아도 먹지 않고 갖고 가서, 어머니 개에게 주었다. 어머니 개가 죽어도 강아지들은 시체를 지켰지만, 결국은 강아지들도 죽어버렸다.

절의 일하는 지덕 갖춘 승려가 그것을 보고 모자 6마리를 위해서 비석을 세우고, 사람에게도 뛰어나는 그 순정을 표창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훈계했다.

⑮다이코우지아토(이찌가하라하지 아토)

하쿠호우시대, 미시마타이샤와 관계 깊은 조우부후카마의 개인적 절로써 건립되었다. 헤이안(平安)시대(836년)에 고쿠분니지의 소실 후, 이 절은 고쿠분니지의 대용하는 절이 되었다. 그 규모는 시내 호케교우지 부근으로 북쪽의 유센지·미시마타이샤 앞의 구국도 1호까지 연기된 광범위한 지역에서, 야쿠시지 식의 승원 배치 절의 흔적이 된다. 또, 유센지 경내에는 당시의 4탑 주춧돌이 남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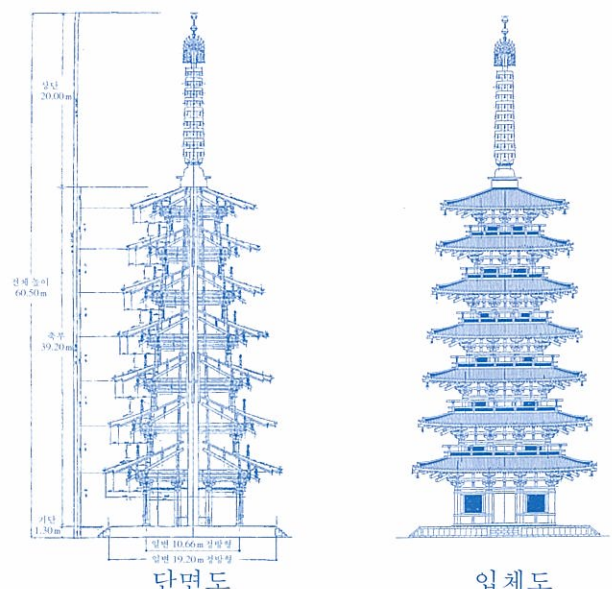
⑯고쿠분지 탑 주춧돌

741년의 쇼무(聖武) 천황의 칙명에 의해 창건된 2개의 탑(약 214m) 사방을 절 영역으로 하는 대사원의 유적이다. 현존하는 8개의 돌은 칠층의 탑 주춧돌의 일부로 그 북측의 반이 것이다. 탑의 높이는 60m 정도 있었다고 상상된다.

미시마(三島) 8 골목

에도(江戸) 시대에, 도카이도(東海道), 고슈(甲州)가이도, 시모다가이도 등의 큰 길에 비해, 애칭으로 불려진 작은 길. 당시 이 8골목의 이름을 거침없이 말할 수 있으면 미시마(三島)인의 증명으로서 관문을 어음 없이 투과했다고 하는 일화도 있다.

아자리코지 사쿠라코지 우에노코지 시타노코지 가나야코지 호소코지 치쿠린지코지 스게코지



고오즈케노쿠니 고쿠분지(國分寺) 칠층탑복원 설계도
(제1층 기둥 간 등이 일치하는 것부터 이즈(伊豆) 고쿠분지(國分寺)와 동(同)규격이라고 상상된다)